

# 과학기술의 대중보급에 이바지

식민지 조선의 과학선구자

## 김 용 관 선생

朴 星 來 <한국외대인문대학장/과학사>

### 제1회 김용관상 제정

지난 10월7일 서울의 어느 일간신문 하단 광고란을 꼭 채운 광고에는 <제1회 김용관상 제정>이란 제목이 달려 있었다. 그 광고를 보고 나는 가슴이 뻘뻘했다. 내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김용관의 역사적 중요성이 조금씩 인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김용관 상>은 「과학기술의 대중보급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려는 상이라고 그 광고에는 써 있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될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 역사에서 김용관(金容權, 1897~1967)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가장 잘 대변하는 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용관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과학대중화운동의 기수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의 우리 역사에서 「과학자」 「기술자」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대체 과학이며 기술이란 것이 우리 역사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김용관이 과학기술의 대중화운동에 열을 올렸던 1930년대의 우리나라 형편을 살펴보다도, 우리에게서 그때 아직 과학자다운 과학자, 기술

자다운 기술자가 없던 때였다고 할 만하다.

바로 그 시절에 과학대중화운동의 기수 노릇을 했던 대표적 인물이 김용관이다. 1933년 6월에 창간한 「과학조선(科學朝鮮)」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잡지라 할 만한데 그가 그 주역을 담당했다. 그전에도 과학잡지가 아주 없지 않았지만, 몇 번 계속해 간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김용관의 「과학조선」은 44년 1월 중단될 때까지 명맥을 유지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잡지였다.

### 과학대중화운동 기수

일제시대의 과학대중화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일제시대에는 아직 한국에는 과학이란 것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과학기술의 미개지였다.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뺏긴 조선인들은 조금씩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눈뜨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일본은 조선인에게 과학과 기술의 교육을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태도였다. 26년 일제는 조선에 경성대학이란 첫 대학을 세우기는 했지만, 법문학부와 의학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뿐이지 이공과는 설치하지 않았다. 과

학자나 기술자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일본 유학을 하지 않아서는 안되도록 만들어 조선인의 과학기술 수준을 아주 낮게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김용관 등이 과학의 대중화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바로 당시 일제하에 신음하고 있던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문제와 연결된다. 31운동 이후 활동은 상당히 자유로워졌지만, 분명한 민족운동을 벌일 수는 없었다. 당시의 민족지도자들은 민족운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과학대중화운동을 통해 간접적 민족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과학조선」을 둘러싼 과학대중화운동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 <과학데이> 제정

「과학조선」은 김용관이 전무이사로서 중심역을 맡고 있던 발명학회에서 1933년 기관지로 창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34년에 이 단체는 다시 과학지식보급회라는 별개의 단체를 만들고, 이 잡지를 이 새기관에서 만드는 본격적인 대중과학잡지로 체제를 바꿨다. 그리고 잡지와는 별도로 4월19일을 <과학데이>로 정하여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과학의 대중화운동을 펼쳐가

기로 정했다. 여기 참가한 인사들은 윤치호, 이인, 여운형, 김성수, 방용보, 송진우, 이종린, 최규동, 조동식, 현상윤, 이하윤, 윤일선 등등 당시의 언론인, 작가, 사업가, 교육자, 학자 등 민족지도자가 고르게 가담하고 있었다. 말이 <과학운동>이었지, 실제로 그것은 <민족운동>이었다.

1935년의 <과학데이> 행사는 전해의 행사보다 훨씬 요란했고, 아마 우리 역사상 가장 거창한 과학관계 행사였음이 분명하다. 지금도 <과학의 날>(4월21일)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의 그것은 반세기 전의 것에 비하면 멋도 없고 국민적 관심도 거의 없는 형식적인 잔치로 퇴색한 감이 있다.

<과학데이>라 쓴 큼직한 깃발을 앞세운 행진은 악대가 선도했는데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김안서가 시를 쓰고, 홍난파가 작곡한 「과학의 노래」가 연주되었다. 이날밤 종로의 YMCA에서는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불렀고 기념식에 이어서 여운형의 강연 「과학자에게 고(告)하는 일언(一言)」도 있었다. 라디오 방송이 이날의 행사와 함께 과학강연을 방송했고, 비슷한 행사는 평양, 신천, 원산, 개성 등지에서도 열렸다. 이 행사를 전후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3대 신문은 연일 특집 기사를 내고, 포스터를 실어 주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4월21일은 1967년 과학기술처가 간판을 단 날을 기념해 정해진 것이어서 아직 30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날을 정할 때 과학기술관계자들은 김용관도 몰랐고, 우리의 과학사에는 관심도 없는 채였기 때문에, 이미 1934년부터 5년동안 <과학데이>가 훨씬 화려하고 장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지금이라도 <과학의 날>은 당연히 59년 전

의 <과학데이> 4월19일로 옮겨져야 마땅하다. 금년(1993) 4월에는 처음으로 KBS-TV가 <과학 2001>시간에 30년대의 과학의 노래를 남성 합창으로 방송한 일이 있다. 나의 주장이 여기서도 조금씩 관철되고 있는 것같이 여간 기쁘지 않다.

## 발명학회 설립 주역

30년대 과학대중화운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김용관은 1897년 3월21일 서울 창신동에서 여유있는 상인 김병수(金丙洙)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에 들어가 화공학을 공부한 그는 곧 일본 동경에 있는 구라마에 고등공업학교 요업과에 입학했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1운동 직후에 이미 귀국해 버렸던 것같이 때문이다. 귀국해서 그는 부산에 있던 도자기회사를 다니다가 서울로 옮겨 잠깐 중앙공업시험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일을 그만두고 1924년 발명학회를 설립하는 주역을 담당했고, 이 기관은 33년에 「과학조선」의 발행을 시작했다. 김용관은 공업전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안정된 자리를 얻어 정착할 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그가 어떻게 32년에는 다시 발명학회를 부활하고, 이듬해에는 「과학조선」을 창간할 수 있었던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여하튼 그는 여러 지도층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그의 과학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단한 정열과 추진력을 보여 주었다. 한번 발명학회를 시작하고 이어서 과학지식보급회를 만들면서 이 기관에서는 과학기술관계 책만이 아니라 역사, 철학, 문학 등의 책들을 마구 찍어냈고, 이런 사업에

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38년 제5회 <과학데이>행사 중에 일본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데이>도, 그리고 김용관이 그렇게나 열성으로 뛰고 있었던 과학대중화운동도 시들기 시작했고, 「과학조선」 역시 명맥 유지가 어려워져 갔다. 표면적 이유가 무엇이었던진, 조선인들 사이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과학운동을 일제는 이때쯤 확실히 위협한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민족운동이나 마찬가지로 탄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민족갱생의 선각자

김용관은 언제 황해도 재령으로 낙향했을까? 1940년 「과학조선」이 복간되었을 때 그는 재령에 있는 명신(明新)중학교 교사자격으로 「독가스에 대하여」란 글을 투고하고 있다. 김용관은 2남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평생 밖으로 나가 활동적이었던 그만큼 가정에서는 그리 살뜰한 아버지 노릇은 못했던 것 같다.

해방후 그는 전공했던 요업분야에 관계하여, 서울공업의 요업과 교사, 특허국 심사관, 발명협회 부회장을 지냈고, 11개의 특허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는 30년대에 그렇게도 열성이었던 대중화운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는 1967년 9월24일 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암울했던 1930년대의 식민지 조선 - 그 속에서 과학의 대중화를 통해 민족갱생의 길을 찾아보려 했던 선각자 김용관은 당시 대표적 과학자였다. 그는 과학사에 남을 인물일 뿐 아니라 그와 그의 과학대중화운동은 <독립기념관>에도 당연히 소개되어야 할 일이다.